

KIA, 안타 더 치고도 사사구·실책에 '무릎'



삼성과 원정전 7-10 패배
사사구 6·실책 3...실점 빌미
김현수, 3.2이닝 3K 1실점 호투
류지혁, 3안타 공·수 활약
최형우·최원준 멀티히트
오늘부터 창원서 NC와 2연전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 첫 경기는 수비 '호림', 공격 '맑음'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7-10 패를 기록했다. 전날 시범경기 개막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이날 KIA는 첫 경기에 나섰다. 류지혁이 3안타를 터트리는 등 KIA는 장단 12안타로 안타 수에서는 삼성(8개)에 앞섰지만, 사사구 6개와 실책 3개로 승리를 내줬다. 1회말 첫 실점도 사사구가 빌미가 됐다.

선발 김현수가 선두타자 박해민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한 뒤 김상수에게 볼 4개를 연달아 던졌다. 오재일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1사 1·3루, 강민호의 타석 때 1루로 던진 견제구가 뒤로 빠지면서 3루에 있던 박해민이 홈에 들어왔다. 김현수는 2회는 삼자범퇴 마무리했지만 3회 1사에서 다시 볼넷을 내줬다. 이번에는 김상수와 오재일을 각각 3루수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4회 초구에 강민호를 유격수 땅볼로 잡은 김현수는 이원석을 상대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며 3.2이닝(60구) 2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시범경기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KIA의 두 번째 실점도 볼넷이 시작점이었다. 4회 2사에서 김현수에 이어 등판한 장민기가 첫 타자 강한울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5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선두타자 김현근을 볼넷으로 내보냈고, 폭투도 기록했다. 1사 2루에서 연속 볼넷을 허용한 장민기는 이후 연속 4안타를 맞고 강판 됐다. 장민기의 프로 첫 시범경기 등판 성적은 0.2이닝 4피안타 2볼넷 1탈삼진 6실점. 볼넷으로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실책으로 뒷심싸움에서도 졌다. 변시원에 이어 전날 선발 등판이 무산됐던 장현식이 4-6으로 뒤진 6회 출격했다. 6회 첫 이닝을 삼자범퇴로 정리한 장현식이 7회

1사에서 김민수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했다. 평범한 유격수 땅볼로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김규성의 포구 실책이 나왔다. 실책에도 장현식은 안주형을 상대로 4-6-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만들어내며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강한울과 송준석의 연속안타로 시작한 8회, 장현식이 다시 한번 병살타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다. 무사 1·2루에서 이성규의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했고, 2루에서 김태진이 공을 넘겨받아 원아웃이 됐다. 하지만 김태진의 송구가 1루에서 벗어났다. 그사이 강한울이 홈에 들어오면서 7-8이 됐다. 장현식은 이후 김지찬을 1루 땅볼로 처리했지만, 박승규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내주면서 3실점을 했다. 아쉬운 수비에도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다. 6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류지혁이 좌전안타를 시작으로 우측, 중앙으로 공을 보내면서 2루타 포함 3안타쇼를 펼쳤다. 류지혁은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공·수에서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했다. 투타자 최원준과 4번타자 최형우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감을 보여줬다. 삼성과 시범경기 첫 일정을 소화한 KIA는 22일 창원으로 자리를 옮겨 '디펜딩 챔피언' NC 다이노스와 2연전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지혁

양현종, MLB 진입하나

시범경기 3이닝 4K 1실점 호투
텍사스 감독 "구위 만족스럽다"



양현종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공격적인 투구와 헛스윙을 유도하는 체인지업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26명) 진입 가능성을 키웠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지난 20일 "정확하게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개막 로스터를 정할 때) 양현종 합류 여부는 여러 고민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며 "오늘 투구는 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이날 다저스와의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구원 등판해 3이닝 3피안타 1실점 4탈삼진으로 호투했다. 공 37개로 3이닝

을 채웠고, 사사구는 내주지 않았다. 양현종은 이날까지 시범경기에서 3차례 등판해 6이닝 6피안타 2실점(평균자책점 3.00) 8탈삼진을 올렸다. 세 번째 등판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우드워드 감독 또한 "오늘 등판이 가장 인상적인 거"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경기 중에 양현종에게 '체인지업을 유리한 카운트에서 유인구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는데, 실제로 마지막 이닝에 그렇게 삼진을 잡았다. 조언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칭찬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이 오늘 경기 내내 초구, 2구째 스트라이크를 잡는 등 공격적으로 투구했다"며 양현종에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이 개막 로스터에 진입할 확률이 몇 %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엔트리를 결정할 때 많이 고민할 텐데 양현종도 여러 고민 안에 포함될 것이다. 오늘 투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연합뉴스

광주-제주, 4년만에 만나 4번째 무승부



펠리페, 마수걸이 골 1-1...엄원상 부상·노골 선언 '악재'

광주FC가 4년 만에 전개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대결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노골 선언에도 펠리페의 마수걸이골로 1점은 챙겼지만, 엄원상이 부상으로 주저앉는 등 아쉬운 경기가 됐다. 광주는 지난 2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K리그1 2021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2017년 10월 1일 마지막 대결에 이어 4년 만의 격돌, 앞선 13번의 대결에서 5승 3무 5패로 평행하게 맞선 양 팀은 이번에도 우위를 가리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직'으로 다시 만난 이들의 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남기일 전 광주 감독이 성남에서 제주 사령탑으로 변신해 처음 대결에 나섰고, 트레이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광주 이찬동과 윤보상이 제주 여름과 처음 맞서는 경기였다. 전반 11분 팀을 바꾼 이찬동과 여름에 시선이 쏠렸다. 여름이 올린 코너킥을 정운이 헤더로 연결

하면서 광주의 골대를 겨냥했다. 아찔했던 순간 이찬동이 머리로 여름의 도움을 막았다. 여름은 전반 24분에도 키커로 나서 권학진의 헤더를 도왔지만, 이번에는 이지훈의 머리에 막혔다. 광주는 제주의 공세를 잘 막으며 기회를 노렸지만, 부상과 노골 악재가 겹쳤다. 전반 28분 공을 뺏으려고 발을 뻗은 '에이스' 엄원상이 공만현과 충돌 뒤 넘어졌다. 무릎을 붙잡은 엄원상은 들것에 실려 나왔고, 엄지성과 교체됐다. 후반 9분에는 환호가 아쉬운 탄성이 됐다. 김주공이 문전에서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경합과정에서 팔로 정우재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판단과 함께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득점을 놓친 광주는 후반 19분 정우재의 몸을 날린 헤더에 실점을 기록했다. 악재의 연속에도 광주가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후반 26분 기다리던 골이 마침내 터졌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우뜸이 펠리페를 향해 공을 날렸다. 헤더가 예상됐던 순간 공이 머리에 맞기 전 떨어졌지만, 펠리페가 수비수 사이에서 떨어

진 공을 오른발로 때려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광주는 이후 윤보상의 슈퍼세이브를 앞세워 경기 만에 승점 1점을 보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3-4일 만에 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부상선수도 나와서 정상 전력으로 임하기 어려웠는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다"며 "전반전 안정적으로 가고 후반 승부를 보려고 했다. 짧은 패스를 통한 선 굵은 축구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다. 선제골을 넣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실점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점을 만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도 승점은 챙겼지만 엄원상의 부상에 김호영 감독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벤투호' 소집을 앞두고 있던 엄원상은 정밀검진 결과 내측부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파열은 피했지만 엄원상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3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10일 대구, 13일 전북, 17일 서울을 만났던 광주는 20일 제주전을 끝으로 숨기했던 3월을 1승 1무 3패로 마무리했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보낸 뒤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안방에서 인천을 상대로 전용구장 첫 승에 도전한다. /제주-김여울 기자 wool@



"골이야~" 광주FC의 펠리페가 지난 2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6라운드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26분 동점골을 넣은 뒤 이찬동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뮌헨 vs PSG' 8강서 대결

지난해 UEFA 챔피언스 결승 상대...PSG, 설욕 기회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서 겨뤘던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올 시즌 대회 8강에서 일찍 만났다. 최근 열린 2020-2021시즌 UCL 8강 대전 추첨

에서 뮌헨과 PSG의 대전이 성사됐다. 지난 시즌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달성한 뮌헨은 결승전에서 프랑스 최강 PSG를 1-0으로 꺾은 바 있다. PSG는 구단 사상 처음으로 UCL 결승 진출을

이뤄냈으나 7년 만의 유럽 정상 탈환을 이룬 뮌헨의 조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위를 달리는 맨체스터 시티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맞대결하며, 토마스 투헬 감독 부임 이후 공식전 13경기 무패를 달리는 첼시(잉글랜드)는 포르투(포르투갈)를 상대한다.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잉글랜드)과 맞붙는다. 8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며 1차전은 내달 6-7일, 2차전은 13-14일 치러진다. /연합뉴스